

역사문화자원 활용 위한 선진지 연수 결과 보고

1 연수 개요

○ 목적

- 원도심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 보전하고 명소화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중인 선진 사례를 검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도시의 가치와 경쟁력 강화

○ 기간 : 2018. 4. 27.(금) ~ 5. 4.(금) <6박 8일>

○ 장소 : 헝가리 부다페스트, 체코 프라하 인근

- 헝가리 부다페스트 구시가지 관광자원 활용 사례 탐방
 - 부다지역 : 세체니 다리, 부다왕궁, 마차시성당, 어부의 요새, 겔레르트 언덕
 - 페스트지역 : 시민공원, 영웅광장, 성이슈트반 대성당, 바치거리
 - 도시 야간경관 탐방(유람선 탑승,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 헝데드 도자기마을, 발라톤호수 티하니마을 관광자원 활용 사례
- 체코 프라하 시내 관광자원 활용 사례
 - 바츨라프광장, 구시가지광장, 천문시계탑, 까를교, 존레넌 벽 등
 - 도시 야간경관 탐방(까를교, 블타바 강가, 레트나공원, 프라성)
- 체스키 크룸로프 마을 세계문화유산 지역 탐방
- 베네소프 코노피스테 성(박제, 엔틱가구), 쿠티나호라 해골성당 문화 탐방

○ 연수자 명단 : 7명

○ 주요 일정

일 시		장 소	교통편	주요 일정
4.27(금) <1일차>	13:15 20:30	인천 모스크바 부다페스트	항공기	▶ 인천 국제공항 출발 → 모스크바 경유 → 부다페스트 프란츠 리스트 국제공항 도착 → <택시>호텔(Hungaria City Center)
4.28(토) <2일차>	08:50 09:00 14:00 21:00~22:30	부다페스트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유람선	▶ 호텔 출발 ▶ 페스트 지역 시가지 관광자원 활용 사례조사 - 영웅광장, 시민공원, 안익태선생 동상, 바치거리, 국회의사당, 성이슈트반 대성당 ▶ 부다 지역 관광자원 활용 사례 탐방 - 세체니다리, 부다왕궁, 어부의 요새, 마차시성당 ▶ 다뉴브강 수변공간 야간경관 벤치마킹 (유람선)
4.29(일) <3일차>	07:50 08:00 10:00 14:00 15:00 17:00	부다페스트	승합차	▶ 호텔 모여 미팅 ▶ 도자기마을 헤렌드로 출발 (129km, 약2시간) ▶ 헤렌드 관광자원 활용 사례 탐방 - 도자기박물관, 도자기공방 견학 및 만들기 체험 - 공방카페 명품도자기로 커피 마시기 ▶ 발라톤호수 티하니마을로 출발 (40km, 약 1시간 소요) ▶ 티하니마을 및 발라톤호수 관광자원 활용 사례 탐방 ▶ 부다페스트로 출발 (139km, 약 2시간 소요)
4.30(월) <4일차>	06:00 09:20 10:45 11:30 14:30	부다페스트 프라하	택시 항공기 택시 대중교통 (트램, 버스)	▶ 호텔 → 부다페스트 프란츠 리스트 국제공항 (24km, 약 45분 소요) ▶ 프라하로 출발 ▶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 도착 ▶ 호텔 도착 및 체크인 (18km, 약 30분 소요) ▶ 프라하 시내 관광자원 활용 사례 탐방 (까렐다리, 구시가지광장, 천문시계, 바츨라프광장 등)
5. 1(화) <5일차>	07:30 11:00 14:00 16:00 20:00	프라하 체스키 크룸로프 프라하	승합차	▶ 체스키 크룸로프로 출발 (172km, 약 2시간 45분 소요) ▶ 체스키 크룸로프 박물관 (공식기관방문) -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 도시 ▶ 체스키 크룸로프로 관광자원 활용 사례 탐방 (체스키크룸로프성, 스보르노스티광장 등) ▶ 프라하로 출발 ▶ 불타바강 야경 탐방

일 시		장 소	교통편	주요 일정
5. 2(수) <6일차>	09:00	프라하	승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하 인근 코노피슈테 성으로 출발 ▶ 베네소프 코노피슈테 성 탐방 (50km, 40분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내부 박제동물, 가구, 그림 - 성 주변 건축물, 조각품, 숲, 호수 등 ▶ 쿠틀나호라 해골성당 탐방 (프라하에서 65km, 1시간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골성당, 성바바라 대성당 ▶ 프라하로 출발 ▶ 프라하 성 야경 탐방
	09:50	베네소프 코노피슈테 성		
	14:00	쿠틀나호라 해골성당		
	21:00~22:30	프라하 성		
5. 3(목) <7일차>	10:20	프라하	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 (18km, 약 30분 소요) ▶ 모스크바 국제공항으로 출발 ▶ 모스크바 국제공항 도착 ▶ 인천 국제공항 출발
	13:30	모스크바	항공기	
	17:30		항공기	
5. 4(금) <8일차>	11:25	인천	항공기	▶ 인천국제공항 도착

□ 연수 결과 및 시사점

부다페스트, 프라하 특징

- 면적 500km² 내외, 인구 120만이 넘는 동유럽 대표적 정치, 경제 중심 도시
 - 부다페스트는 헝가리, 프라하는 정치와 경제 중심인 행정수도
 - 도심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중심으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뉨
 - 2차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지배하에 공산주의체제를 유지하다가 1989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유럽연합 가입 등 경제개혁을 진행 중
- 민족 고유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역사와 문화 중심 도시
 -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해마다 관광객 증가
 - 전쟁 피해 및 자연과 사회적 재난재해가 적어 역사문화 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전통을 살리면서 지역 특색에 맞게 계승 발전
- 전통과 현재가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고 고품스런 관광산업 육성
 - 문화유적, 싼 물가, 편리한 교통시설을 바탕으로 관광산업 발전
 -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활용한 밤문화 체험관광으로 머무르는 관광 유도
(유럽 3대 야경 : 헝가리 부다페스트, 체코 프라하, 프랑스 파리)
→ 유람선 야경 투어, 파티버스 야경 투어(맥주 제공), 올드(old) 카 투어 등
 - 특산품과 관광지의 특성을 이용하여 창의적 관광상품 개발
→ 해골성당의 해골 모형의 기념품, 주머니에 담긴 파프리카 가루, 도자기 등
- 문화예술과 창작 체험을 조화한 이색체험관광 활성화
 - 헤렌드마을(도자기 제조과정 둘러보기, 만들기, 명품잔 커피 마시기, 전시관 감상)



교훈 및 시사점


유사한 점

- 전통과 문화 계승 발전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경관 조성
- 차별화된 문화예술, 성숙한 기초질서를 바탕으로 관광산업 육성

시 검토사항

- 전통문화 보전 및 계승 발전 위한 도시경관 등 철저한 제도적 장치 마련
- 'Only one 정신'으로 순천형 관광자원 및 특화상품 창조적 개발
-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유지 및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으로 기초질서 선진화
-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인 양성

부다페스트

지도 정보	도시 주요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헝가리 평야의 북서부와 도나우강 양안(兩岸) - 경위도 : 동경 19°03'01", 북위 47°28'19" - 면적(km²) : 525.16 - 언어 : 헝가리어 - 통화 : 포린트 Ft(유로화 통용은 제한적임) - 시간대 : UTC+1, Summer : UTC+2 - 홈페이지 : http://www.budapest.hu/ - 인구(명) : 1,741,041(2011년)
<p>헝가리 평야의 북서부, 도나우강(다뉴브강) 양안(兩岸)에 걸쳐 있으며, 우안의 구시가지 부다와 좌안의 신시가지 페스트로 이루어져 있음.</p> <p>부다는 대지(臺地) 위에 자리하며, 왕궁(王宮)의 언덕·겔레르트 언덕 등이 강기슭 근처까지 뻗어 있고, 역사적인 건축물이 많음.</p> <p>페스트는 저지에 자리한 상업지역으로, 주변지구에 공장과 집단주택이 들어서 있음. 철도·도로·하천 교통의 요지로 국제공항이 있음.</p> <p>대표적인 산업은 기계공업이고, 철강·비철야금·화학·섬유·식품 등 공업도 활발함. 정치의 중심지로서 관공서, 옛 국회의사당 등이 있고, 문화의 중심지로서 과학아카데미·종합대학(에트뵈스로란드대학)·의과농과경제 등 단과대학 외에 많은 도서관박물관이 있음. 그밖에 전통을 자랑하는 음악학교·국립극장 등을 포함한 많은 극장이 있음.</p> <p>관광지로서의 부다페스트는 도나우강을 낀 아름다운 풍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사적(史蹟)으로는 부다 북부에 로마시대의 유적 아쿠인쿰(Aquincum)이 있음.</p> <p>부다와 페스트는 원래 별개의 도시로 발달하였는데, 부다는 2세기부터 파노니안(Pannonian) 지방의 로마의 군(軍) 주둔지 아쿠인쿰으로 알려졌다.</p> <p>14세기경부터 부다는 헝가리의 수도가 되고, 페스트도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하였음.</p> <p>1872년 부다와 페스트가 합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지배 아래 공산주의체제를 이어나가다가 1989년 시장경제체제의 헝가리공화국을 선포, 2004년 5월에는 체코와 더불어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등 발빠른 개혁을 진행 중임. 부다페스트를 비롯해 찬란한 역사와 유적을 간직한 주변 소도시와 온천, 저렴한 물가, 매콤한 음식으로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p> <p>또한, 세계문화유산목록에 등록되어 있음.</p>	

구시가지 부다

○ 세체니 다리

구시가지 부다와 신시가지 페스트를 연결해 주는 다리로 1842~1849년 건설됨. 1945년 독일군에게 폭파됐으나 1949년에 다시 개통. 세체니 이름은 공헌자 세체니백작을 일컫기도 하지만 밤을 밝히는 전구의 모습이 마치 사슬처럼 보인다고 하여 붙여짐. 입구 양편에 혀 없는 사자상 2마리씩 세워져 있음



(세체니 다리)

○ 부다 왕궁

167m 언덕 위에 위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 13세기 후반 벨러4세에 의해 건축되었고, 17세기 합스부르크 왕가 궁으로 사용됨. 2차세계대전때 국립도서관을 제외하고 크게 파손되었다가 1956년에 복구되어 지금은 국립미술관, 국립도서관, 역사박물관, 공연장 등으로 사용중임.



(부다 왕궁)

○ 어부의 요새

1899~1902년에 건축한 네오로마네스크 양식의 요새로, 끝이 뾰족한 지붕이 특징이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됨. ‘어부의 요새’ 명칭은 중세 어부들이 길드를 조직 거주하며 생선시장을 열었다는 설과 국난에 처했을 때 어부들이 자발적으로 적의 공격을 방어해 도시를 지켰다는 설에서 유래됨



(어부의 요새)

○ 마차시 성당

1255~1269년 건축 이래 헝가리 황제들의 대관식이 거행된 곳. 1407년 마차시 왕 지시로 첨탑이 증축되어 마차시 성당이라 함. 현란한 색상의 타일 모자이크 지붕을 만든 것이 특징이며, 성당 앞 광장에는 삼위일체상이 세워져 있음



(마차시 성당)

○ 겔레르트 언덕

해발 235m에 위치해 전망이 좋고, 2차세계대전시 전사한 소련군을 위해 꼭대기에 14m의 치타델러여신상이 모스크바를 향해 손에 야자잎을 들고 서 있는 종전 기념비가 세워져 있음



(겔레르트 언덕)

□ 교훈 및 시사점

- 전쟁때 파손된 왕궁을 복원하여 2천년의 역사와 예술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역사박물관, 국립미술관으로 활용함. 또한, 전쟁의 치욕과 아픔을 후세들에게 역사적 교훈으로 남길 수 있도록 종전 기념비도 보전하고 있음

신시가지 페스트

○ 시민공원

1896년 헝가리제국 1000년 기념으로 조성한 공원. 단지 초입에는 영웅광장 중심으로 양옆으로 순수회화 미술관과 현대미술관이, 공원 내 큰 연못 중앙에는 바이다휴냐드 성, 동/식물원, 세체니 온천 등이 있음. 2012년 5월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우리나라 애국가를 작곡하신 안익태선생을 기리고 한국과 헝가리의 친선을 위해 선생의 흉상을 여기에 건립했음.



(시민공원 내 미술관)

○ 영웅광장

헝가리 1천년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기리기 위해 1896년에 조성됨. 광장 중앙 36m의 기념탑 꼭대기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서 있음.

1956년 헝가리혁명의 중심지였으며, 지금도 국가의 중요 기념행사 장소로 이용되고 있음.



(안익태선생 흉상)

○ 성이슈트반 대성당

기독교를 헝가리에 전파하여 성인으로 추대된 이슈트반 성왕을 기리기 위해 세운 부다페스트 최대의 성당으로, 50년에 걸쳐 완공됨.

이 성당 탑은 96m로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높으며 이 숫자는 헝가리의 건국 해인 896년의 96을 의미함. 도나우 강변의 모든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위해 이보다 높이 지을 수 없게 규제됨.



(영웅광장)

○ 바치거리

보행자 전용 거리로 부다페스트 최고의 변화가. 헝가리 특산품인 자수제품이나 헤렌드 도자기, 각종 기념품들을 쇼핑하고 구입하기 좋은 곳.



(성이슈트반 대성당)



(바치거리)

□ 교훈 및 시사점

○ 도시를 대표하는 스토리텔링과 문화로 시민공원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 헝가리제국 1천년 기념을 위해 조성한 시민공원은 미술관과 동 식물원, 온천이 한 곳에 모여 있고, 바치거리 등 변화가가 가까워 느긋하게 관광하면서 문화도 향유하고 특산품과 기념품도 살 수 있어 '문화체험 힐링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 《우리시》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시민공원 조성 및 문화체험 힐링 관광 브랜드화 추진

부다페스트 야간경관

- 유람선에서 바라보는 부다페스트 야경
 - 파리, 프라하와 함께 유럽 3대 야경.
 - 다뉴브강 유람선을 타고 지나가면는 세체니다리를 비롯해 부다왕궁, 어부의 요새, 겔레르트 언덕 등 야경에 빠져드는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국회의사당. 시야에 들어온 국회의사당의 모습은 동화같은 황금성. 낮에도 멋진데, 밤의 모습은 환상적임.
 - 유람선에서 스쳐가는 야경이 아쉬워 택시 타고 국회의사당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다시 봐도 헝가리 국기가 펄럭이고, 1년을 상징하는 365개의 크고 작은 첨탑의 웅장한 아름다움이 일품임



(세체니 다리)



(부다왕궁, 어부의 요새)



(국회의사당)



(유람선 야경 투어)

□ 교훈 및 시사점

- 프랑스 파리, 체코 프라하와 함께 유럽 3대 야경으로 유명한 부다페스트 야간경관을 개발하여 유람선, 야간투어버스 등을 통해 머무르는 관광 유치.
- 《우리시》정원과 자연을 주제로 차별화된 야경 상품 개발로 새로운 관광시장 개척

도자기마을 헤렌드

- 부다페스트에서 차로 약 2시간 걸리는 ‘도자기마을’ 헤렌드는 독일의 마이센, 덴마크의 로열 코펜하겐과 더불어 세계 3대 명품 도자기를 만드는 곳임
 - 장인들이 100% 수작업으로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었으며, 장인의 지도하에 도자기도 만들어 보고, 명품도자기로 커피 마시는 체험도 하였음
 - 미술관에 전시된 8,000점 이상의 유명 작품 감상
- 1826년 빈스 스탕글(Vinse Stangl)이 헤렌드에 도자기 제조공장을 세웠다가 파산, 모르 피셔가 1839년 인수하여 19세기 중반까지 합스부르크 왕조와 유럽 귀족집안에 예술적인 도자기를 공급하였음. 비엔나전시회, 런던대영전시회, 파리세계전시회에서 헤렌드 브랜드는 최고의 평가를 받았고, 영국왕실 등 세계 60여국에 수출하고 있음.
- 1948년 공산당정부에 의해 국유화되었다가 공산주의 퇴각 후 헤렌드는 다시 민영화 되어 현재 경영진과 노동자가 회사 지분의 75%를 소유하고 있음.



헤렌드 도자기마을



도자기 제조과정(100% 수작업)



(도자기 체험, 만들기/명품잔에 커피)



(도자기 미술관)



☐ 교훈 및 시사점

- 헤렌드는 전통을 고수하여 고급 도자기를 만들고, 예술가적 특성을 갖춘 숙련된 도예가들이 헝가리 전통 공예의 진수를 방문자들의 체험을 통해 홍보
 - 《우리시》 공예품관을 유치, 도자기 만드는 과정에서 명품 전시관 둘러보기, 만들기/명품잔으로 전통차 마시기 체험 등 방문자들이 추억에 남는 도자기체험상품 개발

발라톤호수 티하니마을

- 부다페스트에서 차로 1시간 30분, 헤렌드마을에서 40분 거리에 있으며, **발라톤호수는 중부유럽에서 가장 큰 호수**로 헝가리 사람들은 ‘헝가리의 바다’ 라고 하며 그 북부 티하니반도 전체가 역사지구 및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됨
- 발라톤호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베네딕트수도원**은 1055년 신축, 1754년 **바로크양식**으로 재건축되어 잘 보존되어 역사, 예술적 가치가 높음
- 베네딕트수도원 뒤쪽 발라톤호수 감상 후 전망대 따라 산책로가 잘되어 있음
- 접근성이 용이하고 잔잔한 물결로 인해 요트, 윈도서핑, 보드 등 다양한 수상 **스포츠**와 아름다운 풍경 코스로 인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휴양지**임
- 이곳은 한때 동독 난민들의 텐트 수용소가 있었고, 동서독 이산가족 상봉장소로 이용됨
- 티하니마을은 **라벤더와 파프리카**가 특산품으로, 라벤더를 활용한 방향제, 꿀, 화장품, 차와 파프리카 가루나 향신료, 도자기를 파는 가게들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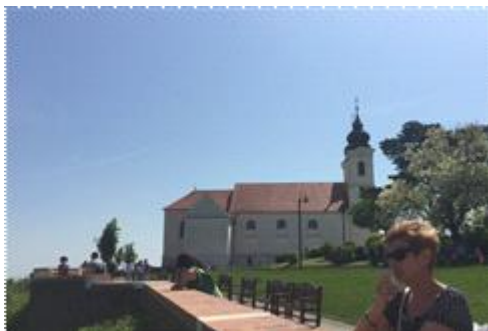
전망대에서 본 발라톤호수



파프리카 가루



기념주화 자판기
(여행안내소 설치)



(베네딕트 수도원, 전망대)




(라벤더, 도자기 판매점)

☐ 교훈 및 시사점

-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수상스포츠를 유치하고, 특산품을 이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며, 기념주화 자판기를 여행안내소에 설치하여 홍보
→ 《우리시》 특산품과 관광지에 어울리는 다양한 상품 개발, 판매하고, 관광안내소에 대표 관광지의 기념주화 자판기를 도입하여 관광객들에게 홍보 및 추억 선물

프 라 하

지도 정보	도시 주요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어명 : Prague - 위 치 : 체코 중서부 - 경위도 : 동경 14°25', 북위 50°05' - 면적(km²) : 496.41, - 언어 : 체코어 - 통화 : 코루나 Kč(유로화도 통용됨) - 시간대 : UTC+1, Summer: UTC+2 - 행정관청 소재지 : Mariánské náměstí 2, 110 01 Prague 1 - 홈페이지 : www.praha.eu - 인구(명) : 1,262,106(2011년)
<p>체코 중서부, 블타바강(몰다우강)이 시내를 흐르고, 라베강과의 합류점에 위치하며, 체코 최대의 경제·정치·문화의 중심도시로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비교적 따뜻하며 습도가 낮고 BC 4000년경부터 사람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슬라브인(人)이 들어온 것은 5·6세기이고 9세기 말에 성이 축조됨.</p> <p>11세기에는 구(舊)시내 광장에서 교역이 시작되었고, 12세기에는 이미 중부유럽 최대의 도시의 하나로 발전함. 그 후에도 인구는 늘어나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최대의 공업도시로 성장하였고,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로 독립한 이래 수도가 됨.</p> <p>제2차 세계대전 후 1948년 2월 사건, 1968년 1월의 '프라하의 봄'이라 부르는 자유화운동이 소련 등 바르샤바 조약군(軍)의 침입으로 짓밟힌 역사적인 사건의 무대가 되었으며, 1993년 1월 1일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어 체코의 수도가 됨.</p> <p>프라하에는 100여 개의 기업이 있고, 전국 공산품의 10% 가량을 생산하고 있음. 주요한 것은 기계공업으로, 국영기업의 CKD(전기기관차 등)와 테슬라(모터·방송관계) 등이며 인쇄업도 중요함. 식품산업으로는 스미호프의 맥주, 프라하 햄이 유명하고, 그 밖에 의복·제지·화학(주로 타이어) 산업 등이 있음.</p> <p>유럽철도의 중심지로, 유럽의 각국과 연결되며 하항(河港)으로 근채에는 항공망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음.</p> <p>시는 10개의 구(區)로 나누어져 있으며, 교외지역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음. 시에는 대통령관저·정부·의회 등의 정부기관 및 국제적인 기관 등을 비롯해서 과학아카데미·프라하대학교(1348)·음악대학·도서관·스트라호프 민족자료관·박물관·극장·천문대·스포츠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음.</p>	

프라하 시내

○ 바츨라프광장

블타바 강 왼쪽 지구로 중세시대 카를 4세에 의해 조성된 신사가지에 위치한 광장. 원래 마(馬) 시장이었던 곳이고, 광장 이름은 체코의 최초 왕조인 프르세미슬왕가의 왕 바츨라프에서 유래하며, 사후 성인으로 추대된 체코 기독교의 상징적 인물임.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 독립선언이 이 광장에서 선포되었고, 1968년 ‘프라하의 봄’으로 불리는 자유화운동이 일어났으나 소련의 군사 개입으로 큰 희생을 치렀지만, 결국 1989년 몇십만의 시민들이 광장을 메우며 공산정권의 몰락을 이끌어 낸 벨벳 혁명이 일어난 민주화의 상징적 장소이기도 함



(바츨라프 광장)

○ 하벨시장

성하벨교회로 가는 길에 있는 시장으로 평일에는 주로 채소와 과일을 판매하고, 주말에는 글라스와 마리오네트 등 각종 기념품 파는 시장으로 탈바꿈. 골목 재미있는 가게들을 구경하며 즐길 수 있는 곳임



(하벨시장)

○ 구시가 광장

블타바 강 오른쪽 오래된 구시가 중심에 위치한 광장으로 11세기 교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지역이며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등 건축양식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음. 구시가 광장 주변은 구시청사와 천문시계, 틴 성모교회, 골드 킨스카궁전 등 다양한 볼거리 있음. 광장 한가운데 안 후스 동상 세워져 있는데 종교개혁가와 카를대학교수로서 부패한 성당과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여 화형을 당한 그를 추앙해 세웠는데 지금은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음



(구시가 광장)

○ 구시청사와 천문시계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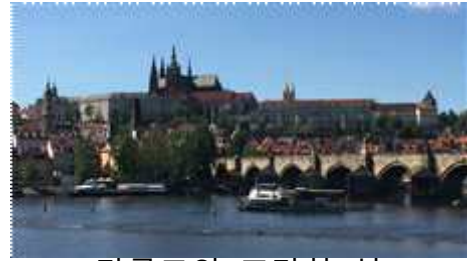
14세기 고딕양식으로 지은 시청사로 1945년 나치에 의해 손실되었지만 30m 높이의 천문시계탑은 원형 그대로 보존됨. 시간, 일출, 일몰까지 표시해주는 천문시계탑은 15세기 수학교수 하스주에 의해 제작되었는데 너무 아름다워 유럽 각국에서 주문이 쇄도함. 프라하 시청에서는 더 이상 만들 수 없도록 교수의 눈을 멀게함. 시계탑을 볼 수 없게 된 교수가 탑에 올라가 시계를 만지는데 이때부터 400일간 시계탑 작동이 멈추었다는 일화가 있음



(구시청사와 천문시계탑)

○ 카를교

블타바강을 가로질러 우안 구시가지와 좌안 프라하 성을 연결해 주는 다리. 1357년~1402년 건설되었고, 300년에 걸쳐 제작된 30개 성인상이 불만하며 성 요한 네포무크 조각상에 얹힌 일화가 유명함. 바츨라프4세가 왕비 조피에의 고해성사 내용을 알려달라는 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다리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 난간에 있는 청동십자가 5개의 별 중 하나 만지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전설 때문에 새까맣게 손때가 탐. 지금은 보행자 전용 다리로 이용되고, 항상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으로 음악과 파포먼스 볼 수 있는 예술의 다리로 유명함



(카를교와 프라하 성)



(블타강 유역 수상레저 즐기는 모습)

○ 프라하 성

블타바 강 인접 언덕 위에 위치하며 9~10세기 로마네스크양식에 의해 건축되었으며, 1526년 합스부르크왕가가 보헤미아를 지배하면서 르네상스 양식이 추가됨. 성내에 구왕궁, 성비타 대성당, 성이르지 교회, 황금 소로 등이 있음. 현재 구왕궁은 대통령 집무실과 영빈관으로 사용되고 있음



(프라하 올드카(old) 투어)

○ 성비타 대성당

프라하 성 대표 건축물로 11세기 로마네스크양식으로 건축했다가 1344년 카를4세때 고딕양식으로 재건축 보석 박힌 예배당 벽과 제단 바츨라프 생애 다룬 프레스코화, 화려한 스테인글라스가 특징임.



(성비타 성당)

○ 성이르지 교회

프라하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두 개의 첨탑 중 붉은 쪽은 아담, 가는 쪽은 이브를 상징. 매년 5월 '프라하의 봄' 축제때는 음악공연장으로 변신함.



(프라하성 야경)

○ 황금 소로

프라하에서 가장 아기자기한 거리. 중세 연금술사와 금 세공사들이 거주했던 곳. 현재 보헤미안 글라스 상점, 기념품점으로 사용됨. 카프카의 집도 있음

□ 교훈 및 시사점

- 카를교 밤의 클래식 버스킹공연, 음악을 들으며 다리에서 본 프라하성 야경, 블타강 수상레저시설, 프라하 구시가지역의 허가받은 자동차만 다닐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오래된 모형의 4인 자동차를 타고 구시가지 돌아볼 수 있는 '올드(old)카 투어'를 상품화하여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이색 관광 유치 → 원도심과 동천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체스키 크룸로프 성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200여 km 떨어진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근처에 위치하며, 인구 13,000여명, 연 관광객 1백만여명이 넘음. 블타바 강변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작은 도시로 붉은 지붕과 둥근 탑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분위기를 연출함. 체코가 공산국가 시절에는 낙후도시에 불과했지만 1992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고 건축물 400여채가 역사 유적화 되면서 주목을 받게 됨. 13세기 남 보헤미아의 비테크가가 이곳에 자리 잡고 고딕양식의 성을 짓기 시작한 것이 체스키크룸로프의 시작으로 이후 르네상스, 바로크시대 건물들이 일부 추가 되었으나 18세기 이후 지어진 건물이 거의 없어 중세마을의 특징이 가장 잘 보존된 곳으로 평가 받고 있음. 이 성은 체코에서 프라하 성 다음으로 큰 성으로 16세기 르네상스양식으로 개축 하면서 둥근 지붕의 탑과 회랑 등이 추가되었음. 성 안에는 영주가 살던 궁전과 예배당, 조폐소, 바로크식 극장과 정원이 재현되어 있어 중세 귀족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음. 구시가지는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물이 즐비하고, 좁은 길은 아기자기한 수공예품 파는 상점과 카페로 관광객들을 즐겁게 함. 해마다 6월에 축제가 열리는데, 마을 사람들이 르네상스시대의 옷을 입고 거리에서 공연을 하며, 체스키크룸로프성에서는 바로크시대의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회나 18세기 귀족들의 가면무도회가 열림.



〈체스키크룸로프 성 모형도(1/200축척)를 통해 이곳의 역사와 문화 설명〉



(성이 잘보이는 전망대, 시청 광장)

□ 체스키크룸로프 박물관 공식 방문 및 시사점

- 1988년 유네스코 등록을 신청하여 1992년 4년만에 등록됨. 2~3년마다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파견 나와 운영관리와 보존상태를 점검하고 컨설팅 해주고 있음
→ 유네스코 지정되면 지원비는 없지만, 도시의 명예와 관광산업의 파급 효과 큼
- 수익은 입장료, 문화재 보호료, 대관료가 주류이며 운영비는 국가지원 받고 있음
- 전쟁의 피해 없고, 재난재해가 거의 없어 도시와 성 건물이 그대로 잘 보존됨
- 마을을 위에서 아래로 한눈에 내려다보는 1/200 축척의 큰 도자기 모형도 제작하여 활용
- 박물관 활동 : 역사문화지구를 보존하면서 주변 농업, 산업, 경관과 연계하여 조화롭게 관광산업 육성 위한 전략 수립, 방문자와 체험학습 요구사항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봄과 여름은 관광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고, 가을과 겨울에는 너무 적어 계절성 관광 한계 극복 방안 모색 중 → 관광객 추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광상품 개발 필요

베네쇼프 코노피슈테 성

프라하에서 서남쪽으로 약 25km 떨어진 베네쇼프 지역에 위치한 성으로 보헤미아 지방의 실세였던 베네쇼프 가문의 영지. 13세기 말 고딕양식으로 지어진 요새로 후에 르네상스 양식으로 개조되어 18세기 말 지금의 모습을 갖추.

오스트리아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도가 1887년 성을 구입, 1914년 사라예보 사건으로 암살되기 전까지 자신의 관저로 사용함. 사냥을 좋아했던 그가 50년 동안 약 30만 마리의 동물을 사냥하였다고 전해지며 현재 성 내부에 약 1,000여 마리 동물 박제가 진열되어 있음. 또한, 앤틱 무기, 가구, 그림 등을 통해 그 시대의 삶을 볼 수 있었음.



(베네쇼프 코노피슈테 성)



(성 건물에 부착된 사진, 프란츠황태자 동상)



쿠트나호라 해골 성당

중세 은광의 도시 쿠트나호라.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국제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지역으로 해골성당과 성바바라 대성당 등이 있음.

해골성당은 순례자가 예루살렘의 흙을 가져와 뿌린 곳에 지은 성당으로 14세기 흑사병이 전 유럽으로 확산될 때 죽어가는 병자들이 성스러운 곳에 묻히기 위해 이 곳으로 왔다고 함. 더 이상 매장할 땅이 없자 1870년 사토 수도회에서 삶의 무상함을 가르치기 위해 지하 토굴에 쌓인 해골로 성당 내부를 장식하였음. 인골로 만든 상들리에와 제단 등 성당 곳곳에 쌓여있는 해골을 보니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음



(해골성당 내부)



(해골성당 보수공사 중 (기념품점) (성바바라 성당 주변)



□ 교훈 및 시사점

-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도시 특성에 맞게 관광자원화 하고, 각 관광지 특성을 살린 독창적인 기념품을 개발하며, 관광객이 증가하여도 상업성에 휩쓸리지 않고 마을 전통과 아름다움을 지켜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임